

# 남구, 단열·보일러 교체 등 취약계층 300세대 주거환경 개선

### 에너지 효율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7월까지 접수 가구당 200만원 이내 국비 제공...“에너지 효율 개선”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저소득 가정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 에너지 효율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남구는 28일 "한국에너지재단과 남구청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사업 협약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주거환경 개

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오는 7월까지 주거지 소재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단열과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보급 등 취약계층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를 비롯해 차상위 계층, 동장의 추천을 받

은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 가구 등이다. 다만 단순하게 도배와 장판 등을 교체하고자 하는 가정이나, 주거급여 대상자 중 '자기' 소유인 가구, LH 및 도로공사 소유의 임대주택 및 아파트, 3년 이내 같은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구는 오는 7월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은 뒤 수요 조사를 통해 에너지 사용과 주거환경 등이 열악한 가구 300세대를 선정해 가구당 200만원 내외로 국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께서는 이 사업을 통해 에너지 비용도 절감하고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다"며 "에너지 복지가 절실한 저소득 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가구 발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국비 10억원을 지원, 저소득층 520여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2,300여 가구에 선풍기 등 냉방 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내달 13일까지 관내 27개 동 자생단체장 등 주민들을 구청장실로 초대해 구정 성과와 현안을 공유하는 '열린 구청장실'을 운영한다. /북구 제공

### 북구, 구청장실서 주민과 대화... '열린 구청장실' 운영 내달 13일까지 관내 27개 동 주민 초대... 구정 성과-현안 등 공유 28일 중흥1·2·3·중앙·임동 등 5개 동 50여명... 각 동별 의견 청취

28일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에 따르면 내달 13일까지 관내 27개 동 자생단체장 등 주민들을 구청장실로 초대해 구정 성과와 현안을 공유하는 '열린 구청장실'을 운영한다. 이번 '열린 구청장실'은 각 동별 건의사항이나 숙원사업 등을 청취해 향후 구정에 반영하고자 마련됐으며 올해도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문인 북구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북구는 28일 중흥1동, 중흥2동, 중흥3동, 중앙동, 용봉동 등 5개 동 50여 명의 주민들을 구청장실로 초대

해 생활SOC복합화사업, 마을미래계획 만들기, 주민자치관리제 확대 등 구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민선 7기 구정성과를 공유하고 각 동별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북구는 이개 동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접수한 건의사항 442건 중 322건(처리율 73%)을 완료했으며 총 54회의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의 날'을 운영하는 등 주민중심·현장중심의 구정을 펼쳐오고 있다. /김정관 기자 kissout@



광산구, 광주송정역서 도로명주소 사용 캠페인  
광주 광산구는 23일 광주송정역에서 도로명주소사용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광산구 공직자들은 역 안팎을 오가는 시민에게 관련 홍보물을 나눠주며, 도로명주소 사용을 당부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도로명주소를 생활주소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로명주소 생활화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산=주행탁 기자 htjoo@

## 서구보건소, 직장인 위한 야간금연클리닉 운영

운영기간 : 2020년 2월~12월(매월 첫째 주 목요일 18:00~21:00)

광주 서구 보건소가 낮 시간동안 금연클리닉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위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으로 흡연율 감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서구보건소는 새해를 맞아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들, 특히 낮 시간에 금연클리닉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및 학생들을 위해 야간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금연하고자 하는 서구민들은 2020년 2월부터 매월 첫째 주 목요일 18:00 ~ 21:00 저녁시간대

에 야간금연클리닉을 방문해 니코틴 의존도평가, 소변농도 검사, 흡연유형평가, 일산화탄소농도 측정 결과 등에 따른 보조제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 금연전문상담사의 1:1 맞춤형 상담서비스, 행동요법 유도(손지압기, 톨키스 등)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6개월간 CO 또는 니코틴검사를 통해 음성반응 시에 6개월 금연성공 기념품도 제공한다.

서구보건소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서구 야간금연클리닉이 새해에 금연을 결심한 금연시도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해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금연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062-350-4722)로 문의하면 된다. /윤규진 기자

### 시각장애인·고령자 위한 음성으로 듣는 '서구 소식지'

활자→음성 전환한 '보이스 아이' 소식지를 읽는데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들이 쉽게 활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세계 70여국의 언어로도 번역해 들을 수 있어 한글이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 가정 여성들도 한국어로 서구 소식지를 들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최근 외국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몇 개 국어 등으로 발행됐던 각종 홍보물도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게 됐다. 이용 방법은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를 설치한 다음 '서구 소식지' 각 페이지 상단에 인쇄된 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페이지 내용이 자동으로 음성으로 나온다. /윤규진 기자 jin2001@

활자→음성 전환한 '보이스 아이' 소식지를 읽는데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들이 쉽게 활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세계 70여국의 언어로도 번역해 들을 수 있어 한글이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 가정 여성들도 한국어로 서구 소식지를 들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최근 외국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몇 개 국어 등으로 발행됐던 각종 홍보물도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게 됐다. 이용 방법은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를 설치한 다음 '서구 소식지' 각 페이지 상단에 인쇄된 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페이지 내용이 자동으로 음성으로 나온다. /윤규진 기자 jin2001@

## 개인회생, 파산, 면책 전문

신용불량을 정상으로 올려드립니다. 빚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희 박연휘 법무사는 회생과 파산만 전문적으로 하고있으며 지금까지 총 3,000건 이상을 처리 했습니다. 믿고 맡기시면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중앙로 114(상무랜드피아 312호)  
T:010-3643-0590 사무실:062)383-5118  
FAX:062)443-0102 E-mail:same2866@daum.net

법무사 박연휘 사무소

www.jndomin.kr  
전남도민일보 캠페인

# 국토의 실핏줄 생강을 살립니다

